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노비 ‘2019 베니핏 나이트’
가을 후원 기금 마련행사 성황
유혜림 밴드 등 공연도 선보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가 음악으로 행복을 줍니다.”

문화 예술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가 1일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에서 개최한 연례 가을 후원행사인 ‘2019 이노비 베니핏 나이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노인, 입원 환자 등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료 음악회를 제공하는 이노비의 활동 기금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고,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베니핏 콘서트에서는 이노비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유혜림 밴드가 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팀에는 드러머 석다연, 피아니스트 이용현, 보컬에 니키타 버шу타인, 색소폰



1일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열린 2019 이노비 연례갈라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 이노비]

에 하비에 델 카스텔로, 더블베이스에 시몽 월슨이 참여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도 행사에 참석해 ‘전세계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유엔대표부의 활동과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표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이노비가 플라워 힐링 프로그램을 열

고 있는 브롱스 소재 캘버리 병원 스텤파니 마스트로파올로 패밀리케어센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노비는 2006년 뉴욕에서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한인 소외계 층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의 소외계층에게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 나누고자 하는 이들을 이어주는 다리

(Innovative Bridge- EnoB)가 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노비는 무료 공연 외에도 올해 그 영역을 넓혀 할렘지역의 소외된 장애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교육사업과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 꽃꽂이 클래스를 여는 플라워힐링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노비 ‘2019 베니핏 나이트’
가을 후원 기금 마련행사 성황
유혜림 밴드 등 공연도 선보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가 음악으로 행복을 줍니다.”

문화 예술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가 1일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에서 개최한 연례 가을 후원행사인 ‘2019 이노비 베니핏 나이트’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노인, 입원 환자 등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료 음악회를 제공하는 이노비의 활동 기금 모금을 위한 목적으로 열렸고,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베니핏 콘서트에서는 이노비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유혜림 밴드가 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팀에는 드러머 석다연, 피아니스트 이용현, 보컬에 니키타 버шу타인, 색소폰



1일 맨해튼 리버사이드교회에서 열린 2019 이노비 연례갈라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 이노비]

에 하비에 델 카스텔로, 더블베이스에 시동 월슨이 참여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도 행사에 참석해 ‘전세계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유엔대표부의 활동과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표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이노비가 플라워 힐링 프로그램을 열

고 있는 브롱스 소재 캘버리 병원 스텤파니 마스트로파울로 패밀리케어센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노비는 2006년 뉴욕에서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한인 소외계 층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의 소외계층에게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 나누고자 하는 이들을 이어주는 다리

(Innovative Bridge- EnoB)가 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노비는 무료 공연 외에도 올해 그 영역을 넓혀 할렘지역의 소외된 장애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교육사업과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 꽃꽂이 클래스를 여는 플라워힐링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